

동신대학교 오늘 개교 20주년

비전 2020 선포

“전국 최고 교육중심 대학으로”



동신대는 23일 개교 20주년을 맞아 장년개발계획인 '동신 비전 2020'을 선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 대학으로 거듭나 사회와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동신대(총장 정기언)가 23일로 개교 20주년을 맞는다.

동신대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학생회관 강당에서 이원도 동강·후석학원 이사장, 김필식 해인학원 이사장, 이근범 명예총장, 강정채 광주·전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최인기 국회의원 등 교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기념식을 갖는다.

정기언 총장은 이날 개교기념식에서 오는 2010년 호남권 1위, 2020년 국내 10위권 안에 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년개발계획인 '비전 2020'을 선포할 계획이다.

지난 1987년 나주시 금성산 자락 20여만평의 부지에 친환경적인 캠퍼스를 조성해 동신공과대학으로 개교한 동신대는 이후 199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돼, 현재 5개 단과대학, 1개 학부, 44개 학과에 8천여명이 재학 중인 호남의 명문 사학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1991년 첫 졸업생 72명을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학부 졸업생 1만6천331명, 석사 1천40명, 박사 209명을 배출했다. 동신대 출신 한의사는 48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동신인'들은 국내·외 곳곳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다.

동신대는 특히 문화관광콘텐츠, 한방보건복지, 생물산업 등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성이 높은 3개 분야 학문의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관광·보건복지·바이오·에너지 4개 특성화

‘동신 드림교육 프로그램’ 가동...실무형 인재 양성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인 누리(NURI) 사업 대형과제 ‘문화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중심대학으로 선정돼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주도할 융합형 글로벌 전문인력을 키워내고 있다.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총 248억원을 지원받는 문화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에는 현재 17개 학과가 참여, 남도 문화관광 상품개발·남도 문화관광 세계화·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등 3분야로 나뉘어 특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

또 2006년에는 누리사업 중형과제 ‘농어촌 건강복지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75억여원을 지원받아 농촌지역의 소외된 노인 및 여성층을 위한 건강실제, 건강케어, 여가복지분야 등 3개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동신대는 개교 20주년에 맞춰 수립한 장년개발계획인 '동신 비전 2020'을 차질 없이 추진,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콘텐츠·한방보건산업·생물산업 등 기존 3개 분야의 특성화를 재정비해 문화

관광·보건복지의 특성화를 한층 강화하고 바이오·에너지의 특성화를 단계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총 4개 분야로 확대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 특성화분야 세부 선정 기준 및 지원정책 개발, 성과평가, 신규 누리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대학 발전 비전으로 표방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에 걸맞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인 ‘동신 드림(Dream)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 학생들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동신 드림 교육 프로그램’에는 모든 학생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인성함양 및 기초교양 프로그램, 산학연계·해외체험·공학인증 프로그램, 보충심화학습·학과별 특화 프로그램 등이 망라돼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엘리트 양성을 위한 ‘동신리더’ 선발 및 인재육성관 운영 방안도 포함돼 있다. 동신대는 ‘동신리더’로 선발된 학생과 국가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신대 연혁

- ▲1987 동신공과대학으로 개교
- ▲1992 종합대학으로 승격
- ▲1999 정보통신부 주관 ‘멀티미디어 콘텐츠분야 최우수대학’ 선정
- ▲1999 산업자원부 주관 ‘지역기술 혁신센터설립지원분야 우수대학’ 선정
- ▲2000 산업자원부 주관 ‘생물산업 산학연 협동연구 및 실용화기반 구축사업 우수대학’ 선정
- ▲2002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교수연구부 수혜 전국 4위
- ▲2003 과학기술부 선정 신규 지역협력연구지원센터(RRC) 유치 (총 사업비 96억원)
- ▲2004 정보통신부·한국통신사업 자연합회 지원 IT협동연구센터 선정(총사업비 315억원)
- ▲2004 과학기술부 지방연구중심 대학육성사업 협력대학 선정
- ▲2005 교육인적자원부 누리(NURI) 사업 대형과제 ‘문화관광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총 248억원)
- ▲2006 교육인적자원부 누리(NURI) 사업 중형과제 ‘농어촌 건강복지서비스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총 75억원)
- ▲2006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
- ▲2006 한전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선정(13억)

록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35억원을 들여 인재육성관을 짓고 있다.

정기언 동신대 총장은 “동신대가 짧은 기간에 호남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역민의 성원 때문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중심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순수 교육비용 총 400억 투자 사회서 원하는 인재 키우겠다”

정기언 총장 인터뷰



동신대 정기언 총장은 개교 20주년을 맞아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졸업 후 바로 활용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대학 진학 학생 수가 오는 2012년부터 감소해 2020년이면 현재(59만여명)보다 10만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모든 대학이 학생 수 부족으로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동신대는 그동안 지역 사회 및 산업과 밀접한 학문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해 왔다. 많은 졸업생이 그 혜택을 받았고 재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대학 글로벌 역량 강화

장년개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6개월간을 걸쳐 밤잠을 설치하며 검토하고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장년개발계획(동신 비전 2020)으로 ‘지역집중 교육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채택했다.

- 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연구기능이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닌가.

▲교육중심대학을 표방한다고 해서 연구나 봉사 등 대학의 다른 고유 기능을 절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에 중점을 뒀을 수요자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 효과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체,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연구와 봉사는 교육과 연계된 응용·상용화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을 위한 단계적 실행목표는.

▲먼저,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발전목표를 수립했다. 기본에 충실한 실무형 인재 양성,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 육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열린 대학이다. 이를 달성할 5개 추진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 연구역량 강화와 산

학협력 활성화,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우수인적자원 양성,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최적의 교육 인프라 구축, 혁신경영을 통한 대학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앞으로 구상될 특성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5개 분야 세부사업 중 일부는 담당부서가 후속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업들도 장년개발추진위원회와 앞으로 구상될 특성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다.

-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기금 100억원 확충

▲오는 2020년까지 13년 동안 총 400억원이 들 전망이다. 연간 30억원 규모로 모두 학생 교육에만 투자하는 비용이다. 재원확보를 위해 일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 가용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유치할 방침이다. 전문대학 졸업생을 위한 다양한 편입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 국책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 지역 특화·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가 이뤄지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발전기금 조성에도 힘쓰겠다. 현재 14억원에 불과한 발전기금을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확충하는 게 목표다. 이외 다각도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총장인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확장 이전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심는가발 탄생!!

- 1997년 CAT 불린서 세계선수권대회 대상수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실력자 이수재원장이 직접 시술합니다
-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 타사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전국 최저가 시술
- 타사제품 고가보상판매 실시
-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 30년 경력의 이용사가 직접착용시술 컷트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 시내·외 출장가능 / 신용카드 환영
- 올렉스타일, 취침, 수영, 사우나, 축구, 헬스, 테니스 어떤 운동에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대산프리모남녀가발맞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2-4622~3, 673-5858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로전화 080-323-5858
E-mail: daesangabal.co.kr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졸 커리어매니저 0명 모집

(株) 행복출발 (062) 527-3388

호남지역총괄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들닷컴 >90** 을 치세요